

불교를 만나면서부터다. “공부를 더해보고 싶은 마음에 2005년도에 방송통신대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게 됐어요. 시동아리에 들어가서 활동했는데, 사교의 한계성을 느꼈죠. 좀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불교를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화스님 책을 찾아 읽어보기도 했는데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정토회를 알게 되었고 예술의 전당의 전시회를 들렀다가 근처에 있는 정토법당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그 길로 불교대학과 경전반을 다니며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죠.”

당시, 양 원장은 정토회 산하 국제구호단체인 JTS의 거리모금 캠페인에 매달 참여했다. 제 3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한 JTS의 거리모금은 봉사자들이 모금함 박스를 직접 들고 거리로 나와 굶주리고 병들고, 최소한의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제 3세계 국가 어린이들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모금을 통해 그들에게도 보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낯선 행인들에게 모금을 청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창피함도 부끄러움도 내려놓고 오로지 굶주리는 아이들의 현실을 알리야 하지만 막상 거리로 나가보면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또 모금을 외면하는 이들을 보면 분별심이 나고, 다른 도반들의 모금함이 가득 차는데 자신이 들고 있는 모금통이 비어 있을 때에는 조바심도 난다. 또 모금함에 돈을 넣을 거 같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 다가가는 자신을 관찰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가 된다.

“인사동에서 거리모금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한 장소만 정해서 그 앞에서만 모금을 했어요. 행인들을 쫓아다니며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쑥스럽기만 느껴져서 한 자리만 고수했죠. 하지만 2년 정도 꾸준히 거리모금을 하다 보니 조금씩 사람들 앞으로 나설 수 있게 됐어요. 나중에는 모금을 안 해 줄 것 같은 분들도 찾아다니며 모금을 권장할 정도로 배짱이 생겼죠. (웃음)”

현대화된 탁발이라 표현하는 거리모금을 통해 일상의 자유를 찾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거리 모금을 상기하면서 다시 힘을 찾는다는 양 원장. 그에게 거리모금은 일종의 수행이었고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찾는 매개체가 되었다. “거리모금을 하며 인간에 대한 벽이 깨졌어요. 세상에 좀 더 크게 회향할 수 있는 방법이 거리모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후, 도반들과 함께 회향세상 만들기 서명운동과 최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100만 인 서명을 받기 위해 거리로 나서기도 했어요. 이제는 세상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에 자연스럽게 함께하게 돼요.”

양 원장은 정토회 경전반 졸업 후, 경전반 진행을 2년 정도 도맡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재가자들의 봉사로 진행되는 정토회 경전반은 영상, 회원관리, 법회 진행 등을 회원들이 업무를 분장해 운영한다. 진행을 맡았던 양 원장은 기꺼이 사회를 맡는 모험도 감행했다고. “제가 원래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병원에서 회식을 해도 직원들 앞에서 인사말하는 것조차 사양할 정도로 남 앞에서 말하는 걸 꺼려요. 그런데 경전반 진행을 2년 정도 하니 제 성격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회식자리에서도 기꺼이 인사말을 할 정도로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회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양 원장은 꾸준한 봉사와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힘을 얻었고 이는 세상에 좋은 에너지를 전파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대표원장의 이런 마인드 덕분에 다인치과 직원들도 어느새 이웃과 나누는 일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고. 의사 정성민 씨(32)는 올해 초부터 다인치과 근무를 시작해, 지난 6개월 동안 매주 봉사를



다인치과 양현봉 대표원장은 불교를 만난 뒤 회향의 중요성을 깨닫고 무료치과진료를 결심했다. 그는 회계사 무료치과 진료소에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찾아와 치료받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해오고 있다. “평소 봉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올해 초부터 다인치과에 근무하게 되면서 무료진료를 시작했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너무 기뻐요. 이제는 이곳에 와야 비로소 한 주가 마무리 되는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허락되는 한 꾸준히 봉사하고 싶습니다.”

2년째 봉사를 해오고 있는 김유미 씨(24)는 봉사하는 시간 동안 편안함을 느낀다고. “이곳에 오면 왠지 제 마음이 편해요. 똑같은 일이지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이주민들이 낯설었는데 계속 대하다보니 이제 그들의 말을 따라 할 정도로 친숙해졌죠. 주말에 이곳에 오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도 편하고, 재미있습니다.”

접수를 담당하는 서민희 씨(29)는 다인치과 무료진료소 시작부터 지금까지 5년째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처음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곳에 왔는데 참여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세 달에 한번 꼴로 이곳을 찾고 있어요. 몽골에서 오신 바트보양 스님이 통역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인치과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계속 봉사하고 싶어요.”

어느새 직원들은 봉사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주 절을 찾다보니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는 계기가 된다고 양 원장은 말한다. “교회를 다니는 한 직원은 불교가 사이비인 줄 알았대요. 교회를 다니는 한 직원은 불교가 사이비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회계사에 자주 오면서 불교도 자신의 종교와 다른

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요. 또 불교 서적을 보면서 완전히 사고의 틀이 바뀐 직원도 있어요. 스님들을 통해 알게 된 불교서적에 감동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직원들과 같이 봉사하다보니 무료진료소는 소통의 장이 되었고 직원들도 불교를 편하고 친근하게 생각하게 되었죠. 이 또한 봉사로 얻은 또다른 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인치과 봉사회에는 또다른 과제가 남아있다. 현재 무료진료소를 찾는 대부분이 몽골 이주민이기에 환자의 폭을 다양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양 원장은 강조한다. “지금은 바트보양 스님이 중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몽골 환자가 다수예요. 저희 무료진료소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스리랑카 분들도 종종 오시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환자들의 국적이 한정돼 있죠. 앞으로 저희 무료진료소가 더 많이 알려져서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잘 써주기를 바라며 봉사 자체가 형식이 되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경계하고 돌아본다는 양 원장. 매주 회계사에 들릴 때마다 승산 스님의 부모답을 먼저 찾는다는 그는 ‘오직 모를 뿐 수행하라’는 스님의 말씀처럼 망상과 그림자에 쫓기지 않고 ‘오직 여기’에 깨어 있는 수행자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이끄는 다인치과 봉사회는 오늘도 재능 기부를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전법일기

항 많이 피우면 안되나요?

저 이제부터 “딩티응앗!” 아니에요. “입지영”으로 불러주세요.

27살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인 웃으면서 법회에 참석하자마자 요청을 한다. 자국 출신의 이름을 한국 국적 취득한 다음 가장 먼저 한 일이 개명이라. 왜 그런가 했더니 엄마 이름을 두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리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서 취한 행동이었다.

한국인 아빠와 베트남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에는 갑작스런 이혼이나 기타 사유로 엄마 나라로 출국한 뒤 아직도 되돌아오지 못한 7세 이하의 한국 아이들이 1,000여명이 넘는 통계자료가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무국적 상태로 건강보험과 같은 의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

어 대충 끼니를 때운다. 심지어 속이 쓰리다며 가끔씩 기숙사에서 저녁도 못 먹고 자리에 누고, 두통이 심하다거나 급기야 피가 섞인 소변을 누는 노동자도 생겼다. 폐비닐을 녹여서 화장실 변기 뚜껑을 만드는 곳이었지만 방독용 마스크와 장갑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이 보호 장비없이 뿌연 연기 속에서 얼굴이 별갈게 달아 오른 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런 현장에 한국 사람들은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 말로만 들던 3D업종 일이 바로 이런 곳이었다.

다행히 스리랑카 스님이 매일 노동자 법회를 개설하고, 상담을 하고 피파과에 데려가는 노력 속에 노동 환경도 개선되는 기회가 되었다. 입지영씨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려는 이주여성들의 노력이 대



그림 · 박구원

황이 지속되어 한국을 떠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출생한 아이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그래서 아이가 아를 때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 병원비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각종 안정망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조금은 슬픈 현실이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엄마의 이름을 두고도 놀림을 당하는 사례도 관심 가져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독일, 미국, 중동지역에 노동 인력으로 파견되어 외화를 벌어들였다. 광부, 간호사, 건설현장, 청소일, 세탁소, 공장 등에서 열심히 일해 어렵게 일가(一家)를 일으켜 세웠다. 그 분은 그곳에서 터를 잡고 2세 3세가 현지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자수성가형 교민으로 성장했다. 이들의 값진 노동이 미국과 독일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다양한 곳에서 힘든 일을 떠받쳐 주기 때문에 소규모 생산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다.

얼마 전 스리랑카 스님과 함께 찾아간 노동현장은 매우 부적절한 환경이었다. 청결하지 않은 컨테이너 안에 5~6명이 머물고 식사를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

견다.

얼마 전에는 베트남 출신 불자들이 모여서 매일 1회씩 법회를 보기도 하였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부처님전에 기원하는 모습을 보면 칭찬해주고 싶다. 다만 우리 나라와 달리 항을 3개씩 혹은 한개밖에 많이 피우기 때문에 법당 안에 들어서면 목이 탁해지는 기침을 매번 겪어야 한다. 그만큼 소원이 간절한 까닭인지라 탁할 일은 아니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겐 부처님 도량은 의지처가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주노동자 사이에서 태어난 무국적 아이들이나 다문화 2세 자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양육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오는 2036년에는 한국에서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 인구가 2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됐다. 한국의 노령화는 세계적으로 가장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다문화 자녀의 출가를 기대해 본다.



진소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 구미 대문사 주지)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불다

위드불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배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불다를 검색하세요.